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우리 민족끼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가

지난 주 수요일 9월 5일, 우리 나라 유력 일간지 조선일보에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중견기자의 칼럼이 실렸다.

리 민족이다는 선언과 합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군 사독재정권의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합의했다.

고 반미, 종북, 좌파로 보는 편협된 구시대적 이념의 굴레에 갇고 하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 도처(到處)에 의외로 많다. 동족상잔(同族相殘) 등 민족의 비극은 아직도 상흔(傷痕)이 깊고 아프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글을 쓰고자 한다. 우선 ‘우리 민족끼리’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과 내용이 각자 처지와 이익에 따라서 강대국에게는 제국주의도 되고, 약소국에게는 마법 같은 희망도 되는 변용을 겪은 것은 맞다.

1974년 8월 15일 박 대통령은 1단계 한반도 평화정착, 2단계 상호 문화개방과 신뢰회복, 3단계 남북한 자유총선거라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은 노태우 정권의 1992년 남북기본 합의서, 김대중 정권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권의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도 재확인 되었다.

동·서독의 20여년에 걸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 사례와 교훈을 들지 않더라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같은 이념을 앞세우면 교류 협력이 안된다. 가장 비정치적이고 가장 비이념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 협력의 물꼬가 트이고,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분야로 교류 협력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도 ‘외세 배격’,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을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포기로 잘못 알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본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만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판문점 선언 제1조 1항에 답아서 선언했다. ‘한반도 문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글을 쓴 사람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꿈이고 현실은 강대국의 이익을 무시하고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모든 꿈은 현실 위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간절히 꿈을 꾸면 꿈은 현실이 된다. 또한 민족의 해방도, 국외의 분단도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렇다고 우리의 운명을 언제까지나 강대국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우리 민족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우방이요, 우리의 협조자이다. 강대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운명의 주인공은 우리 민족이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우리 민족이 깨어나서 단결하고 주체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 힘만으로는 안된다. 고 이에 단념하고 주저앉아서는 약육강식의 비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느 손에 또 다시 민족의 비극이 시작될지 모른다.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강대국을 조정하고 증제하고 협조하여 우리 민족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社說

몰래카메라 단속 지속돼야

몰래카메라(몰카)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여성들의 비판을 받은 경찰이 최근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천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천979건)보다 2.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천125건에서 2천5건으로 5.6% 줄었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높아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단속과 더불어 가정폭력 현장 대응도 강화했다. 7월 한 달간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6% 증가했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4% 늘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馳 달릴 기릴 뵈을 푸를

치 예 단 청

馳譽丹青

▷뜻: 그 이름은 생전 뿐 아니라 죽은 후(後)에도 전(傳)하기 위(爲)하여 초상(肖像)을 그린 비각(碑閣)에 그림.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차량 안전삼각대는 생명의 삼각대

운전하는 운전자 한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꼭 제안하고 싶다. 누구나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차 고장이나 부득이하게 주·정차 시에는 안전삼각대를 꼭 설치했으면 한다.

기본차세대. 고속도로 차량 운행 중 가끔 길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거의 100km 이상으로 고속운행을 하기 때문에 갓길 주·정차 시에는 100m 이상의 거리에 전방에 차량이 있다는 안전표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이 안전표식인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가 허다하다. 운전 중 갓길 주·정차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간 100m 이상의 지점과 야간 500m 이상의 지점에 적색 삼광신호나 불꽃신호 등 안전표식인 삼각대를 꼭 설치해야 한다.

자 시에는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만큼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방에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다는 표식을 꼭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삼각대와 적색삼광신호 같은 안전 장구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장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광필 / 화순소방서 화순안전센터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 our positions?).